

1년 이자 1%대 ... 제로금리 시대 오나

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하... 실질이자 0% 가까이

3~4%대 금리 '공격적 영업' 저축은행에 돈 몰려

시중·지방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낮아지면서 1년을 맡겨도 단 1%대 이자만 쳐주는 금융상품이 속출하고 있다. 일본처럼 실질이자율이 0%에 가까운 '제로(0)금리' 시대가 조만간 닥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최근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내렸다. 인하 폭은 보통 0.1~0.2%포인트, 최대 0.6%포인트에 이르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일반정기예금(이자 월지급식) 금리를 0.1%포인트 낮춰 1년 기준 금리가 연 1.90%가 됐다.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회전예금 '두루두루 정기예금' 금리도 0.1%포인트 낮아져 1년 기준 금리가 1.95%다. 일반정기예금은 금리를 0.2%포인트 내려 1년 기준

이자유예금 금리는 2.15%를 주던 게 1.95%로 인하됐다. 회전적금 'My Style 자유적금'도 1년 기준 금리를 2.15% 금리를 1.95%로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력 상품인 '키위 정기예금'의 경우 금리가 내렸지만 여전히 2.30%의 금리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1년 기준 금리를 2.40%를 주던 'e-플러스 적금'의 금리를 1.80%로 0.6%포인트 인하했다. 여성 전용 상품인 '행복출산 적금'도 0.1%포인트 내려 1년 기준으로 금리가 1.90%다.

외환은행은 이달 들어 '매일매일 부자적금' 금리를 2.10%에서 2.00%로 낮췄다. '1004 나눔적금'(2.00%)과 더불어 사실상 1%대 금리다.

국민은행은 최근 자유적립식 '프리미엄

■은행 수신금리 인하

우리은행	일반정기예금 금리 0.1% 포인트 인하
	일반정기적금 금리 0.2% 포인트 인하
하나은행	e-플러스 적금 금리 0.6% 포인트 인하
	행복 출산적금 금리 0.1% 포인트 인하
외환은행	매일매일부자적금 금리 0.1% 포인트 인하
국민은행	프리미엄 적금 금리 0.2% 포인트 인하

적금'의 금리를 1년 기준 2.20%에서 2.00%로 0.2%포인트 내렸다. 스마트폰 예·적금 금리도 0.1~0.2%포인트 인하했다.

광주은행도 1년 기준 상품 기준 '플러스다모아 예금'의 금리가 2.41%, '플러스다모아 적금'의 금리가 2.7%로 대다수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이자 소득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2%대 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모든 은행의 예금금리를 가장 평균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012년 5월 3.92%에서 지난 5월 2.69%로 2년 새 1.23%포인트 내렸다.

목돈을 마련하거나 굴리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이 1%대 금리로 내려가는 현상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한층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대 금리에 실망한 예금자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보장을 받는 저축은행으로 속속 갈아타고 있다.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은행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던 저축은행들은 최근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 일부 저축은행은 4% 안팎의 금리도 제시하고 있다.

옛 현대스위스 계열을 인수한 SBI저축은행 계열은 1년짜리 정기적금에 4.20%의 금리를 준다. OK·아산·청주저축은행(4.00%)과 아주저축은행(3.90%)의 정기적금도 상대적으로 고금리다. 정기예금 역시 유니온저축은행(3.30), 조흥저축은행(3.16%), 진에·한성·청주·대명·동원제일·드림저축은행(3.00%) 등 3%대 금리를 주는 곳이 적지 않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8.93 (+10.43)
- ▼ 금리 2.51% (-0.01)
- ▲ 코스닥 564.93 (+3.18)
- ▼ 환율 1024.40원 (-2.40)

물류업체 5곳, 광양항배후단지 350억 투자

연간 15만TEU 물동량 창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 22일 광양시 및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희망업체 5개사와 3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대우로지스틱스(주)와 ㈜서진로지텍, ㈜물류명가, 이푸른물류센터(주), ㈜벨런스인더스트리

등 5개사는 앞으로 350억원을 들여 광양항 배후단지에 물류거점을 구축하고, 연간 15만TEU(20피트 컨테이너 박스 1

개를 나타내는 단위)의 물동량과 2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는 올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목표 242만TEU 달성에 청신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2017년까지 물동량 처리 300만TEU 달성을 통한 광양항 자립항만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항의 올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한 118만4000TEU를 기록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파진흥원, 25일 나주서 미디어콘텐츠 아카데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이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콘텐츠 분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방송통신 정책연구 및 시장지원의 증진, 전파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무료로,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날은 구글 코리아 유튜브 파트너십 현황 총괄 상황이 강사로 나서 스마트 콘텐츠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망고식스, 내일 DJ센터서 사업설명회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가 24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211호)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브랜드 소개와 가맹점 개설 과정, 시장 현황, 개별 상담, 시식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현재 광주를 비롯, 150여개의 국내 매장을 운영중인 망고식스는 국내 매장 300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 진출을 시작, 3개국에 7개 매장을 열기도 했다.

망고식스는 '망고&코코넛'과 '블루레몬에이드' 등 히트상품을 잇달아 내놓았으며 다양한 망고 메뉴와 하와이안 코나 커피,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상속자들', '신사의 품격' 등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드라마에 PPL 마케팅(간접광고)을 접목,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에 32개 매장을 오픈했으며 성수기 시즌을 맞아 창업문



의가 늘고 있다는 게 망고식스 측의 설명이다.

강훈 망고식스 대표는 신세계 스타벅스 론칭팀을 거쳐 할리스 커피를 설립했고 카페베네 사장직을 역임한 커피전문점 업계의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망고식스는 2011년 글로벌 브랜드를 목표로 론칭했다. 문의(02-501-7266).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평균 아파트, 전용 84㎡ 2억4천만원

부동산 114 조사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균 모습은 1999년 입주해 15년차를 맞은 전용 면적 84㎡(옛 34평) 아파트로 매매가 2억416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 882만7407가구의 입주 연차와 면적, 매매가격을 조사해 중간값을 산출한 결과 평균 아파트에 가장 가까운 곳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가든3차로, 이 아파트는 1999년 6월 입주, 전용 85㎡, 평균 매매가 2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시흥시 장현동 대동아파트와 남양주시 도농동 한신아파트,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3단지, 대구 북구 대우아파트, 경남 창원 대동청솔 등도 평균 아파트 조건과 가까웠다.

서울 평균 아파트는 2001년 입주한 전용면적 85㎡, 매매가 4억2500만원인 아파트로 조사됐다. 전국과 비교하면 입주는 2년 짧고 면적은 3㎡ 가량 넓으며 가격은 1억8000만원 정도 비싸다.

전국 평균 아파트 모습을 10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9.9㎡ 가량 커졌고, 매매가는 1억1128만원 상승했다. 또 면적 증가폭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 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하반기 출시 쏘렌토 초고장력 강판 53%로

기아자동차는 22일 올 하반기 출시하는 신형 쏘렌토(프로젝트명 UM)에 초고장력 강판과 차체 핫스탬핑 공법 등을 확대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차체 강성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신형 쏘렌토는 초고장력 강판비율을 53% 적용하고, 차체 구조 간 결합력 강화를 위한 구조용 접착제를 기존대비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핫스탬핑(강판의 강도를 기존에 비해 3배 이상 높

이는 것) 공법을 적용한 부품을 대폭 늘려 차량 충돌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것이 기아차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형 쏘렌토는 강인한 차체와 조화를 이루는 성능과 내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아차 SUV 최초로 흑한 코스로 유명한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주행시험 및 품질 평가를 실시해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시원한 캐주얼 반바지 정장 인기

남성용 반바지 정장 패션을 둘러보고 있다. 반바지 정장은 활동성과 실용성을 위해 면이나 마가 주소재로 쓰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무더운 날씨 속에 광주지역 백화점 남성 캐주얼 매장에서 고객들이 시원한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